

# 오늘 '달빛더비'...광주FC "연승 가자"

### 인천전 승리로 분위기 살아나

### 대구 원정경기 승리 다짐

### 전남은 22일 서울이랜드와 대결

벼랑 끝에서 탈출한 광주FC가 '달빛더비'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20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간절했던 승리를 거뒀다.

서울, 전북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위기에 몰렸던 광주는 헤이스의 패널티킥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아직도 자리는 최하위지만 분위기를 살리는 귀한 승리였다.

앞서 광주 선수들은 인천전에서 '질실함'을 안고 경기에 나섰다. 허을, 엄지성, 헤이스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 골대를 겨냥했고, '주장' 김원식과 이순민은 몸을 날리는 플레이로 중원을 압박했다.

부주장 이한도도 상대의 공격을 봉쇄하며 김원식과 함께 25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승리로 분위기는 살렸지만, 이번 원정길에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헤이스와 김원식이 경고누적으로 대구전에 나설 수 없다. 이희균, 김봉진, 여봉훈 등이 부지런히 뛰면서 기회를 살려야 한다.

광주의 조직력이 그나마 위안이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하는 광주는 알렉스와 이한도의 센터백 듀오의 탄탄한 수비로 안정감을 더했다.

광주는 '원팀'으로 에이스 세정야를 중심으로 김진혁, 정승원, 정태욱, 에드가 등이 포진한 대구를 묶을 계획이다. 이근호와 이용래 등 베테랑 선수들의 노련함에도 조직력으로 맞서야 한다.

두 팀은 상대전적에서 7승 5무 7패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지난 4월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치러진 최근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0-1 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는 대구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라운드 원정에서 김종우, 김주공, 이한도, 엄원상의 득점포가 이어지면서 4-1 대역전극과 함께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시즌에도 대구에서 두 팀이 10골을 주고받은 난타전을 펼치며, 광주가 6-4 승리를 거둔 기억도 있다.

연패에서 벗어난 광주가 분위기를 이어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위로 내려온 전남드래곤즈는 서울 원정을 통해 3위 재진입을 노린다.

전남은 22일 오후 7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2021 26라운드 서울이랜드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앞선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1-2로 지면서 4위로 내려왔다. 2위로 올라선 안양과는 승점 3점 차, 득점에서 뒤지고 있어서 이번 라운드에서 2위 진입은 불가능하다.

3위 대전하나시티즌이 승점 2점 차에 있는 만큼 3위를 목표로 원정길에 오른다.

전남과 서울이랜드는 2승 5무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선 3월 14일 3라운드 원정에서 1-1로 비겼고, 6월 15일 안방에서 열린 홈경기에서는 발로텔리의 헤트트릭이 터지면서 3-0 대승을 거뒀다.

안양전 패배는 기록했지만 전남은 앞서 1승 2무를 기록했고, FA컵 8강에서는 포항스틸러스를 꺾기도 했다.

호흡을 가다듬은 전남이 1무 3패로 주춤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연패에서 벗어난 광주가 2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의 '달빛 더비'에서 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3월 3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이한도(오른쪽)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선수들. 이 경기에서 광주는 4-1 대승을 거뒀다. <광주FC 제공>

# 시련 딛고 한계 넘는 '패럴림픽 영웅들'

### 5연패 도전 '외팔 탁구선수'

### 나이 잊은 60세 사이클 선수 등

###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도전'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는 자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는 '영웅'들이 출전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패럴림픽에는 181개국 44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2개 종목, 539개 메달 이벤트에서 경쟁한다.

이 중에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맞붙어 국내 팬들의 이목을 끈 '외팔 탁구선수' 나탈리아 파르티카(32·폴란드)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었던 파르티카는 11살이던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한 뒤 2004년 아테네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해 패럴림픽 탁구 최연소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아테네를 시작으로 2016 리우 대회까지 패럴림픽 여자 탁구 단식(장애등급 10)에서는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패럴림픽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이란의 여자 양궁선수 자하라 네마티(36)도 '타이를 지키기'에 나선다.

네마티는 런던 패럴림픽에서 리커브 개인전 정상에 올라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이란 최초의 여성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4년 뒤 리우 대회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했고, 패럴림픽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3회 연속 금메달을 조준한다.

장애인 육상의 강자 마르쿠스 렘(33·독일)도 빼놓을 수 없다.

'블레이드 점퍼'라는 별명을 가진 렘은 리우 패럴림픽 남자 멀리뛰기(장애등급 T44)에서 8.21m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등 패럴림픽에서만 세 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나이를 잊은 사이클 선수도 있다. 후주의 캐럴



'외팔 탁구선수' 나탈리아 파르티카



60세 사이클 선수 캐럴 쿡



멀리뛰기 강자 마르쿠스 렘

쿡(60)이 주인공이다. 1961년생인 쿡은 51세이던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출전해 도로 독주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 리우 대회에서는 도로 경주와 독주에서 2관왕에 올랐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1994년 남편과 함께 호주로 터를 옮긴 그는 4년 뒤 36살 때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련이 쿡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7살 때부터 올림픽이론을 공부하며 수영을 했던 쿡은 장애를 입은 뒤 시 수영을 시작했고, 조정을 거쳐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멋지게 패럴림픽에 출전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60세가 된 올해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연합뉴스

# '도쿄 대결 불발' 아쉬워 마세요

### 3관왕 톰프슨 vs 신성 리처드슨...22일 개막 다이아몬드리그서 격돌



도쿄올림픽 3관왕 일레인 톰프슨



육상 신성 샤캐리 리처드슨

도쿄올림픽의 여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육상 팬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올림픽 최초로 여자 100m·200m 더블더비(2회 연속 우승)를 달성하며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100m·200m·400m계주)를 목에 건 일레인 톰프슨(29·자메이카)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어머니'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5·자메이카)가 22일 만에 재대결한다.

여기에 마리화나 복용으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신성' 샤캐리 리처드슨(21·미국)도 출발선에 함께 선다.

2021 프리폰테인 클래식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가 21일(한국시간)과 22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하이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7월 31일 일본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m 결선에서 1~4위에 오른 선수가 모두 출전한다.

당시 결선에서 톰프슨은 10초61의 올림픽 신기록(중전 1988년 서울,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의 10초62)을 세우며 우승했다. 톰프슨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10초74로 2위를 차지했다. 사상 첫 올림픽 육상 여자 100m 3개 대회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엄마들의 희망'이 됐다.

이번 대회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리처드슨이다.

리처드슨은 6월 20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86으로 우승하며 상위 3명이 받는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됐고, 결국 선수 자격이 한 달 박탈됐다. 대표 선발전 기록도 취소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잃었다.

리처드슨은 여자 200m에도 출전한다. 200m 출전 명단에는 '미국이 사랑하는 스피리터' 엘리슨 필릭스의 이름도 있다. 필릭스는 도쿄올림픽 400m 동메달, 1600m계주 금메달을 차지하며 개인 통산 11번째 올림픽 메달(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을 수확했다. '출산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더 주목받는 필릭스의 이번 대회의 중요한 흥행 요소로 꼽힌다.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5000m와 10000m 금메달, 1500m 동메달을 딴 시판 하산(네덜란드)은 프리폰테인 클래식에서 5,000m에 출전한다. 하산은 도쿄에서 중거리 1500m와 장거리 5000m, 1만m에서 동시에 메달을 획득하는 올림픽 육상 역사 초유의 '대사건'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즐거움 문화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싱크홀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울드, 퍼피 구조대 더 무비
  - 4관 싱크홀
  - 5관 싱크홀
  - 6관 인질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커풀 울드, 프리 가이, 남색대문
  -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